

생활안전 길라잡이

Life Safety Guide



전라남도
JeollaNam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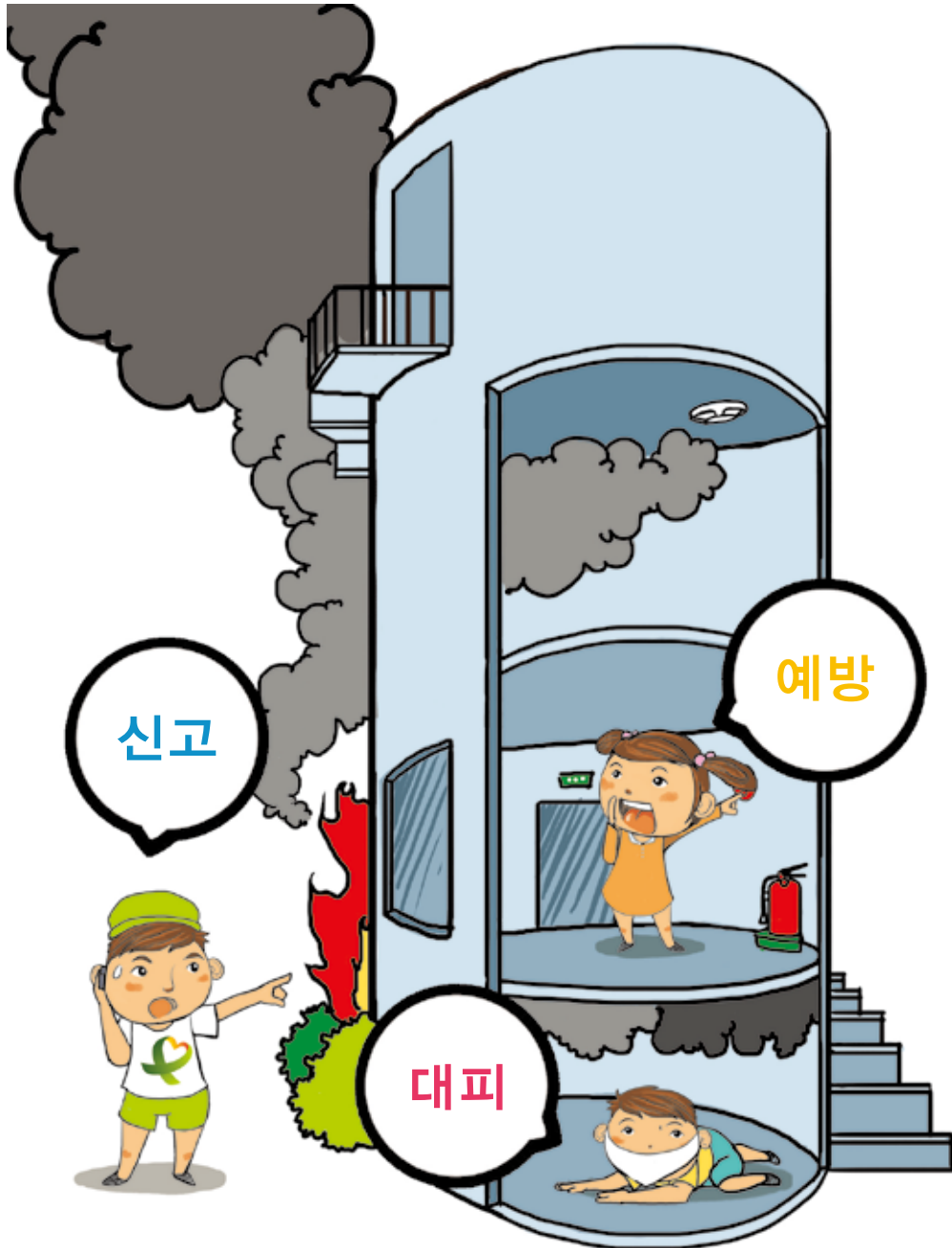


목 차

- | | |
|------------------------------|----------------------|
| 1. 화재예방 및 행동요령 • 05 | 8. 노약자 보행안전 • 30 |
| 2.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안전 • 09 | 9. 호우 • 33 |
|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 12 | 10. 태풍 • 39 |
| 4. 불량식품과 식중독 • 15 | 11. 폭염 • 44 |
| 5. 물놀이 안전 • 18 | 12.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 47 |
| 6. 심폐소생술(기초응급처치)요령 • 22 | 13. 대설 • 52 |
| 7. 어린이 교통안전 • 26 | |
| 부록1. 도내 재난안전 체험교육 시설 현황 • 57 | |
| 부록2. 유용한 재난안전 사이트 • 59 | |



1. 화재예방 및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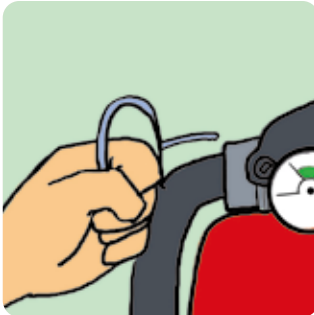


1 화재초기 행동요령



- 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주위사람들에게 알린후 화재경보설비가 있으면 비상벨을 누른다.
- 침착하게 전화로 119에 신고한다.
- 주위에 있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2 소화기 사용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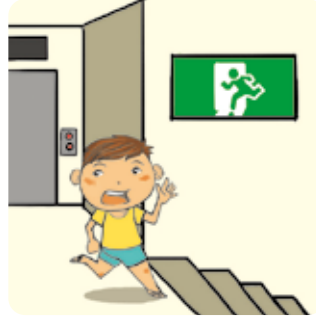
- 안전핀을 뽑고
- 호스를 불 쪽으로
- 손잡이를 힘껏 움켜 쥐고 비로 쓸듯이 뿌려 줍니다.



화재 발생 시
즉시 **119** 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화재 시 우리집의 피난 계획을 세워둡시다.
- 화재시 신속하고 침착한 행동으로 비상구, 피난시설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 및 안내합니다.
- 문을 닫으면서 대피하여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킵니다.
- 대피 시,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하고 비상계단으로 대피합니다.
- 자세는 낮게 하고 물에 적신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고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4 화재시 119 신고요령



- 침착하게 전화로 119를 누릅니다.
-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 소방서에 접수할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5 가정에서의 화재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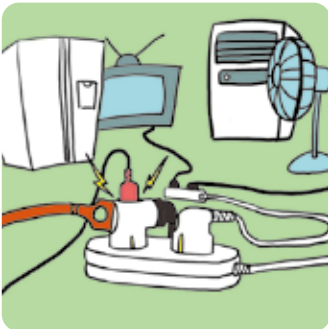
- 불장난을 하지 맙시다.



-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반드시 사용법을 알아 두십시오.



- 연기경보기를 각 가정의 방에 설치하고, 잘 작동되게 하십시오.



- 전기기구에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는 여러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월 1회 이상 누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앞에는 평상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

2.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안전





1 엘리베이터 안전 이용 수칙



-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출입문에 기대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합니다.
- 엘리베이터 안에 이상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전 이용문화



- 승강기를 타고 내릴 때는 질서를 지킵시다.
- 어린이와 노약자가 먼저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3 엘리베이터 갑힘시 행동요령



-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 임의로 판단하여 강제로 문을 열거나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전문가에 의해 구출되는 경우 반드시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수칙



- 황색 안전선 안에 발을 놓고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 핸드레일을 반드시 잡고 탑니다.
-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습니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손을 잡고 탑니다.

5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문화



-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중에 앞사람을 추월하지 말고 질서를 지킵시다.
- 노약자의 짐은 주변에서 들어 줍시다.

6 에스컬레이터 사고시 행동요령



-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 119, 관리주체 등에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1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원인

- 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민첩성과 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 놀이터에서 기구에 오르다가 빠지거나 추락할 수 있으며 움직이는 기구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 놀이터에서 차도로 나가 차에 부딪치기도 하며 많은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기구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 놀이기구를 타다가 떨어지거나 고정된 물체와 충돌하기도 하며 특히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놀이터 안전수칙

1 미끄럼틀



- 앞사람을 밀지 않습니다.
- 미끄럼판으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 엎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습니다.

2 시소



- 반동으로 튕겨나갈 수 있으므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탑니다.
- 시소를 탄 채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뛰지 않습니다.
- 내릴 때는 같이 타는 친구에게 미리 말하고 조심하여 내립니다.
- 시소 밑에 발을 둔 채로 내리지 않습니다.



③ 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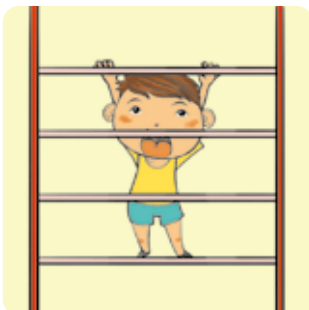
- 줄을 양손으로 잡고 타며 그네가 움직이는 도중에 뛰어 내리지 않습니다.
- 사슬을 꼬지 않습니다.

④ 철봉



- 자신의 키보다 너무 높은 철봉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 거꾸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 내려올 때는 발에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⑤ 오르기 기구



- 가로대를 양손으로 잡고 올라갑니다.
- 내려올 때는 아래를 잘 살핍니다.
-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4. 불량식품과 식중독



1 불량식품 정의, 식별방법

- 정의 : 사전적으로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의미하나,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
 - 변패 · 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되어 신체에 유해한 식품
 - 허위 · 과대광고, 가짜식품 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
- 대표적인 불량식품 판매유형
 - 사육시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악덕 행위
 -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 행위
 - 정식으로 인 · 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
 - 저가 · 저품질 제품으로 허위성을 현혹하는 소비자 심리 악용 행위
 -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



2 식별방법

유형	식별방법
무허가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에 아무런 표시가 없음(제조업소명, 소재지 등) - 등록 또는 특허 출원중이라는 등 애매한 표시 - 허가관청 이외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표시 - 가격이 동종의 타제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고가임
허가제품의 변조 및 위조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모양은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름 - 맛, 냄새, 색깔 등이 원품과 다름 - 주성분의 함량이 지나치게 적음 - 표시된 기호나 도안, 문자 등이 원품과 차이가 남 - 제품의 명칭 및 제조회사명이 비슷함 - 포장지의 원 제조일자 위에 스티커 등으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다시 부착
유해물질 사용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옴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남 - 유난히 부풀어 있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소명, 소재지, 허가번호 및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허위 표시된 제품 - 부패, 변질, 변색된 제품 - 불결하거나 광물성등의 이물질이 유입된 제품 - 다른 회사의 표시가 있는 용기 사용 제품 - 원료명 미표시 제품 - 식품허가기관 이외의 관청명, 단체명, 외국명 등을 강조하는 내용과 특정질병의 효과 등 허위·과대 광고 표시 - 유통기한 경과제품



3 일반위생관리

- ① 손씻기의 생활화 ② 개인 위생관리 철저 ③ 깨끗한 물 사용



- ④ 조리실 내부 청결 ⑤ 의심 식재료 사용 금지 ⑥ 계절별 우려식품 사용 자제



식중독 발생 의심시
시·군 보건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물놀이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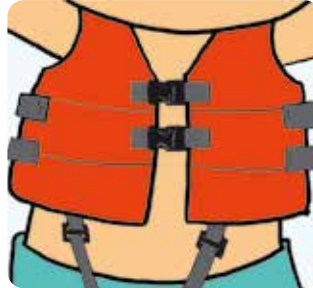




1 물놀이 안전수칙



- 준비운동은 필수



- 구멍조끼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 배 혹은 떠 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습니다.



-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수영 중에 “살려 달라”고 장난 하거나 허위적 거리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 수심이 얕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2 사고예방

▶ 파도가 있는 곳에서 수영할 때

- 머리는 언제나 수면상에 내밀고 있어야 합니다.
- 물을 먹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참기보다 마시는 쪽이 오히려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 큰 파도에 휩싸였을 때는 버둥대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숨을 멈추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 파도가 크게 넘실거리는 곳은 깊고 파도가 부서지는 곳이나 하얀 파도가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얕습니다. 또 색이 검은 곳은 깊고, 맑은 곳은 얕습니다
- 간조와 만조는 대개 6시간마다 바뀌므로 간만 때의 조류변화 시간을 알아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 합니다. 조류가 변할 때는 파도의 흐름이나 해저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 거센 파도가 밀려났을 때는 파도에 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로 향합니다.

3 사고별 대처요령

▶ 수영중 경련이 일어났을때

- 경련이 일어나면 먼저 몸의 힘을 빼서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 (당황하여 벗어나려고 하면 더 심한 경련이 일어납니다.)경련 부위를 주무릅니다. 특히 위경련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구급요청을 합니다.





▶ 물에 빠졌을때



- 흐르는 물에 빠졌을 때는 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비스듬히 헤엄쳐 나옵니다.
- 옷과 구두를 신은 채 물에 빠졌을 때는 심호흡을 한 후 물속에서 새우등 뜨기 자세를 취한 다음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고 헤엄쳐 나옵니다.



물놀이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때 즉시
11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심폐소생술(기초 응급처치) 요령



1 심폐소생술(CPR)이란?

-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었을 때 인공호흡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조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뇌의 손상 또는 사망을 지연시키고자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시하는 기술입니다.









심폐소생술 구성도

- 심폐소생술 = 흉부압박 + 인공호흡
 - 흉부압박 : 인공호흡 = 30회 : 2회
 - 환자가 움직일 때까지 또는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반복 시행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익히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수 있습니다.





2 성인 심폐소생술

	<p>1. 심정지 확인 및 119신고(자동제세동기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여쭙보세요. -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119에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동제세동기(AED) 요청,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직접 119에 신고합니다.
	<p>2. 압박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꿈치 중앙을 양쪽 젖꼭지 사이 흉부의 정중앙에 놓고, 손가락이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 다른 손으로 나머지 손을 덮어주세요.
	<p>3. 압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분당 최소 100회 속도 및 최소 5cm 깊이로 환자 가슴을 눌러 준 다음 힘을 뺍니다.
	<p>4. 가슴압박 30회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당 최소 100회의 속도로 30회 흉부를 압박합니다. 흉부 압박 때 환자 가슴에서 양손을 떼지 않습니다. * '하나, 둘, 셋', ..., '서른' 하고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p>5. 기도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 주세요.
	<p>6. 인공호흡 2회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코를 막고 입속으로 두 번 불어주세요. - 이때, 환자 가슴이 올라와야 폐로 공기가 들어 간 것입니다. *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모르거나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합니다. (가슴압박 소생술)
	<p>7.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하세요. - 구조자가 두 사람인 경우에는 30:2로 1인은 흉부압박을 하고 다른 1인은 인공호흡을 합니다. 5주기마다(매 2분마다) 교대하여 실시합니다.
	<p>8. 압박시간 중단 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흉부압박 시 중단 시간이 10초 미만이 되도록 합니다.

3 영유아 심폐소생술

	<p>1. 기도열기(입 안의 이물 제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의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여, 이물질이 확실하게 보이면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쏙어냅니다.
	<p>2. 압박위치(영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흉골 중앙 바로 아래에 두 손가락을 위치하여 눌러주세요. * 명치를 누르지 않도록 합니다.
	<p>3. 압박위치(유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에 따라 한손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유아의 경우)
	<p>4. 흉부압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흉곽의 최소 1/3 깊이로 분당 최소 100회 속도로 30회 흉부를 압박합니다. 흉부압박 때 환자 가슴에서 양손을 떼지 않습니다. * '하나, 둘, 셋', ..., '서른' 하고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p>5. 기도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손의 이마, 다른 한 손은 턱을 들어 주되 중립위치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p>6. 인공호흡 2회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치자의 입으로 영아의 코와 입을 동시에 막아서 인공호흡 2회 불어넣기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p>7.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되었거나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및 반복 시행토록 합니다.

4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p>1. 자동제세동기 도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합니다.
	<p>2. 전원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 전원버튼을 누르세요.
	<p>3. 두개의 패드 부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 패드 2 :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 패드와 제세동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하세요.
	<p>4. 심장리듬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 손을 떼세요. -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지시와 함께 자동제세동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 제세동이 필요없는 경우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음성지시가 나오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p>5. 제세동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세동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하며, 깜박일 때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시행하세요. *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p>6.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세동을 실시한 뒤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2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p>7.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되었거나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및 반복 시행



7. 어린이 교통안전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시설
이용안내

순천 어린이교통공원 : ☎ 061-749-4036
강진 안전체험관 : ☎ 061-434-6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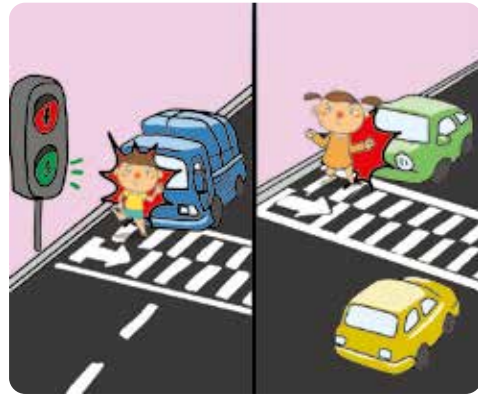
① 무단횡단 금지

- 무단횡단은 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절대 해선 안됩니다.
- 반드시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를 이용합니다.



② 횡단보도 보행법

- 횡단보도는 오른쪽에서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 녹색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으므로 꼭 차량멈춤을 확인합니다.
- 길을 건널 때 꼭 손을 들어서 운전자와 눈 맞추기를 한 후 천천히 걷습니다.



③ 골목길 교통사고 예방

- 멈추어 있는 차 사이에서 뛰어나올 경우 사고 위험이 높으니 차량이 있는 곳에선 절대 뛰지 않습니다.
- 반드시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차량 멈춤을 확인하고 건넙니다.
- 차량이 다니는 골목길에서는 공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④ 버스 정류장 부근 교통사고 예방

- 버스 앞·뒤로 뛰어갈 경우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는 절대 뛰지 않고 항상 조심하며 걸어 다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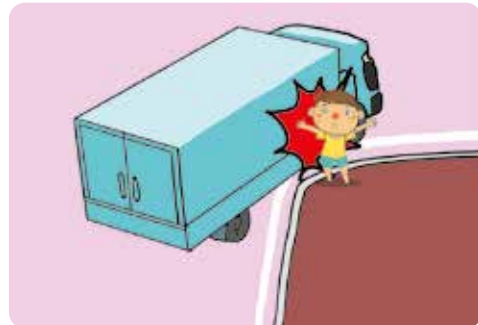
⑤ 주·정차된 차량 근처 안전사고 예방

- 멈추어 있는 자동차가 뒤로 움직일 수 있으니 절대 차 뒤나 밑에서 놀지 않습니다.
- 운전자는, 뒤에서 노는 어린이가 보이지 않으므로 차량 탑승 전 차 뒤에서 노는 어린이를 발견시 놀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 차 밑에 물건이 들어가면 운전자나 주위 어른에게 부탁하여 물건을 꺼내도록 합니다.



⑥ 회전차량 교통사고 예방

- 자동차가 회전하는 길모퉁이는 사고위험이 높으니 차도로 내려가지 말고 반드시 인도로 다닙니다.





⑦ 보호장구 장착

- 차량사고 시 가장 위험한 자리는 운전자 옆 조수석이므로 가능한 앞자리에는 앉지 않습니다.
- 만 6세 미만 유아는 반드시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어린이는 안전벨트가 헐거우므로 수건을 동여맨 후 착용합니다.



⑧ 자전거, 롤러 스케이트 안전사고 예방

- 차가 다니는 곳에서 자전거나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자전거는 체격에 맞는 것을 고르고, 보호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타야합니다.
- 길 모퉁이를 돌 때에는 우선 멈춘 후 차와 사람이 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이용해야 합니다.





8. 노약자 보행안전



1 노약자 보행안전 행동요령



- 무단 횡단을 하지 말고, 횡단보도로 건넙니다.
- 반드시 녹색 불을 확인하고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한 다음에 건너기 시작합니다.



- 녹색불이 깜빡일 때는 생각보다 신호가 빨리 바뀌니 꼭 다음신호에 건너도록 합니다.
- 잠시 쉬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 야간 보행 중에는 흰색이나 밝은 색 옷을 입습니다.
- 조명이 있는 밝은 곳으로 걸어가면 운전자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반드시 보도를 이용합니다.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차와 마주보며 차의 방향을 확인하며 걷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차량 사이로 걷지 말고, 주위가 잘 보이는 쪽으로 걷습니다.

2 교통사고 발생 시, 이렇게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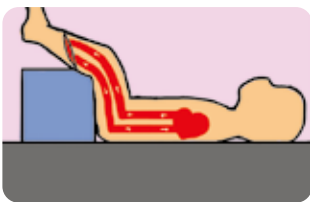
- 먼저 119에 연락하여 응급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 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합니다.



- 타박상 같이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식을 충분히 취한 후, 부상 부위에 2~3일 정도 냉찜질을 하고 그 후에는 온열 치료합니다.



- 머리를 다쳤을 때에는 몸을 고정하여 최대한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 방석 등으로 다친 곳을 지지하여 심장보다 높은 곳에 올려주면 부종이 줄어들어서 통증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습니다.

9. 호우



호우



특보기준

명칭	주의보	경보
호우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1 호우가 예상될 때



-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사전에 옮깁니다.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합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니다.

2 호우 특보시 행동요령

1 도시지역



-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니다.
-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
- 저지대 · 상습 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침수 시 피난 가능한 장소를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알아 둡니다.



- 대형 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물에 잠긴 도로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 둡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② 농촌지역



- 집 주변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를 합니다.
-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합니다.
-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 둡니다.

③ 해안지역



-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가로등과 고압전선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해안도로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니다.
-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해수욕장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③ 산사태,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사태 징후

- ①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②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 ③ 갑자기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 ④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 ⑤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
- ⑥ 땅 · 포장도로 · 인도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를 때
- ⑦ 계단이나 테라스 등과 같은 부속구조물이 떨어지거나 기울 때
- ⑧ 수도관이나 땅속에 매설된 시설물에 균열이 발생될 때
- ⑨ 전신주 · 나무 · 벽 · 울타리 등이 기울 때
- ⑩ 계곡물의 수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탁해질 때
- ⑪ 문이나 창문이 뻑뻑하거나 문설주나 틀이 눈에 띄게 비틀어질 때

대처 요령

- ①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책상 · 테이블 밑으로 피신하고,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 ②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쪽으로 뛰어 대피하세요.
- ③ 바위나 다른 잔해물이 접근해 오면 가까운 나무나 건물이 밀집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 ④ 탈출이 불가능하면 몸을 움츠려 머리를 보호하세요.
- ⑤ 산사태가 발생한 후에는 부상자나 갇힌 사람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4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 파손된 상하수도나 축대·도로가 있을 때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먹거나 요리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



-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니다.
- 가스·전기(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off)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 공사업체의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 가스가 새어 나와 집 안에 차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ライター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10. 태풍



특보기준

명칭	주의보	경보
태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풍(또는 풍랑)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폭풍해일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1 태풍이 오기 전에



-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 둡니다.
-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헛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 유리창은 깨지지 않도록 X자로 테이프를 붙입니다.
-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 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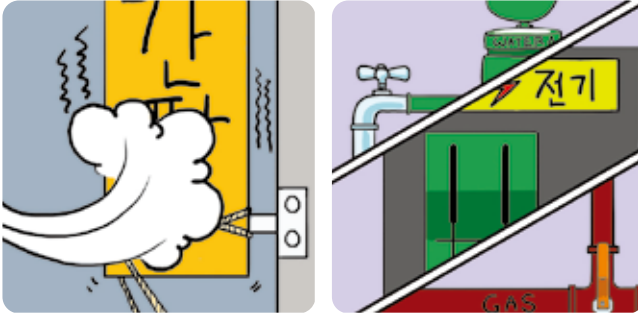
2 태풍이 올 때

1 도시지역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 저지대 · 상습 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대피할 때는 수도,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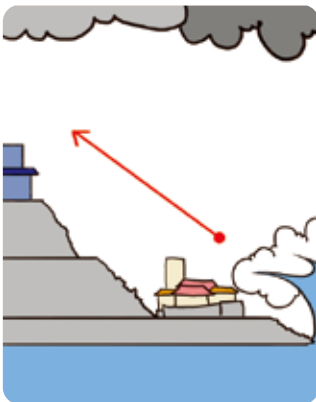
-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② 농촌지역



- 태풍이 왔을 때 경작지 용·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합니다.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③ 해안지역



- 해안도로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 바닷가 근처나 저지대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니다.
- 태풍이 왔을 때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3 태풍이 지나간 후에



-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합니다.
- 비상 식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말고 물은 꼭 끓여 드십시오.
-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갑니다.
- 가스·전기(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off)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 공사업체의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등을 보수·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 제방이 무너질 수 있으니 제방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11. 폭염



특보기준

명칭	주의보	경보
폭염	6월 ~ 9월에 일최고기온이 33°C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6월 ~ 9월에 일최고기온이 35°C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1 폭염 대비 준비사항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C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C~28°C가 적당)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1 가정에서



- 야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마세요.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켜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 두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하세요.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세요.
-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썬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② 산업 건설현장에서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하세요.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 관리 및 소독을 실시하세요.



-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을 섭취하세요.
(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의 착용을 피하세요.
- 안전모 및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 쓰세요.

12.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특보기준

명칭	주의보	경보
한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 한파가 예상될때



-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 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 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써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귀마개, 목도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병자, 만성 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2 한파발령시에는

1 건강관리



-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조이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씻은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부위를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찌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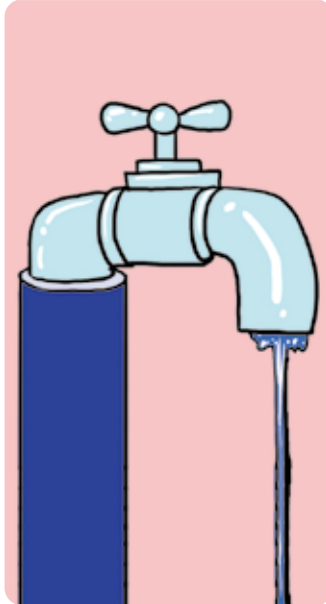
2 운동할 때는



-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말아야 합니다.
-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술은 이뇨(利尿)·발한(發汗)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운동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충분히 보온을 하여 감기를 예방합니다.



③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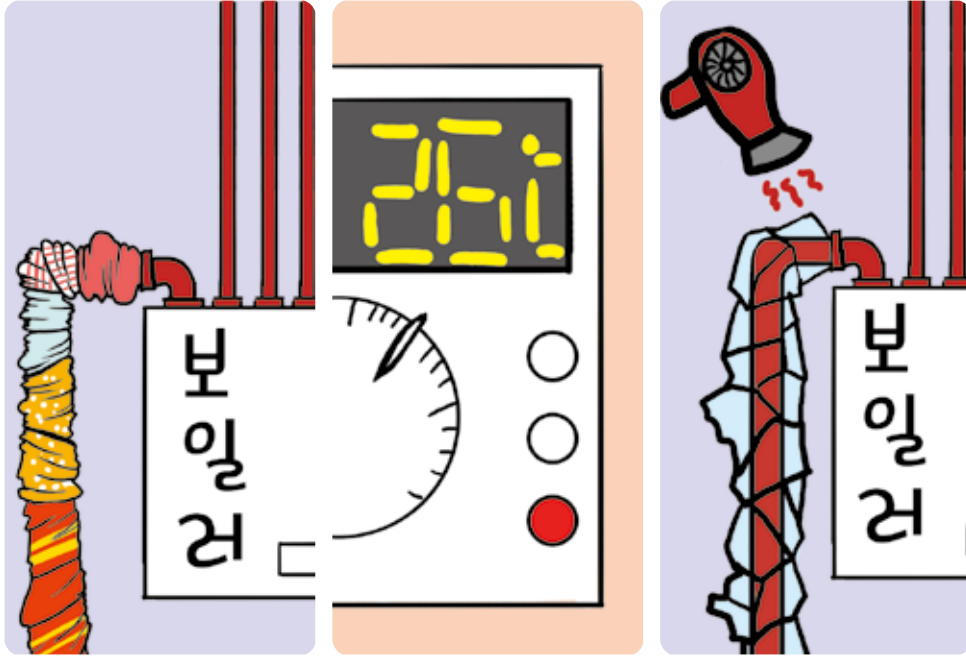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 마당과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해야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말고,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수도관 동파시
시·군청 상수도 부서로 연락하세요

④ 보일러 배관 관리는



- 보일러 밑의 노출된 배관은 헌 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 동파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 관이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이나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





대설

13. 대설



특보기준

명칭	주의보	경보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신적설* : 새로 쌓이는 눈의 양



1 대설이 예상될 때



- 라디오, TV, 스마트폰 등으로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합니다.
- 스노우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눈 피해 예방용 안전장비를 휴대합니다.
- 자가용 대신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 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받침대를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 합니다.

2 눈이 많이 내릴 때

1 차량운전자는



- 고속도로 진입을 자제하고, 국도 등을 이용합니다.
- 스노우 체인을 설치하고 운행합니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구간 등에서는 천천히 운전합니다.
- 라디오, TV, 스마트폰 등으로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운행합니다.
- 간선도로변의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을 주니 하지 않습니다.
- 차간 안전거리를 넉넉히 두고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건널목(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 운전합니다.



② 보행자는



- 될 수 있는 대로 외출을 자제합니다.
-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합니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을 착용합니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야간 눈길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일찍 귀가합니다.

③ 가정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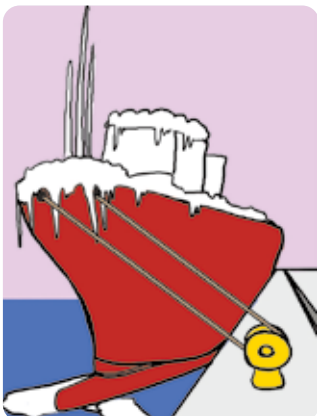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니다.
- 내 집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 낡은 가옥은 안전점검을 하여 붕괴사고를 예방합니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농촌지역에서는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받침대를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 합니다.
- ※ 눈이 20cm 정도 쌓이면 전깃줄이 끊어지고, 소나무가지가 부러집니다.
- 비닐하우스에 쳐져 있는 차광막 등은 미리 제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를 보호합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폭설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합니다.

⑤ 해안지역에서는



- 각종 선박 등을 대피시키고 입출항 통제 및 결박(고정) 조치해야 합니다.
- 수산 등·양식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 해야 합니다.
- 주민, 낚시꾼, 행락객 등은 해안가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❸ 눈이 많이 내려 차량이 고립된 경우에는



- 고립·정체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 재난 문자방송,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한 후 행동합니다.
- 인근에 가옥이나 휴게소 등이 있으면 응급환자나 노인, 어린이 승객을 우선 대피시킵니다.
-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 차량히터를 작동할 때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둡니다.
-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차량 출발이 쉽도록 합니다.
- 모두 동시에 잠을 자지 말고, 동승자가 있는 경우 교대로 잠을 자도록 하여 항상 주위 상황을 살핍니다.
- 제설작업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위하여 갓길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합니다.

부록1 도내 재난안전 체험교육 시설 현황 (5개소)

1 강진안전체험관 (☎ 061-434-6613)

○ 일반현황

- 위 치 : 전남 강진군 성전면 백운로 36 (전라남도교통연수원 내)
- 시설규모 : 559㎡(1층) / 1일 수용인원 : 100명
- 체험종류 : 18종(횡단보도, 안전벨트, 태풍·지진, 생활안전, 응급처치 등)
- 이용시간 : 연중(09:00~17:00, 토·일·공휴일 제외)
★ 체험 소요시간 : 약 1시간 30분
- 이용방법 : 홈페이지(www.gjtsec.kr) 또는 전화예약 후 무료이용

○ 체험장면



자동차 전복체험



태풍체험



지진체험

2 순천 어린이교통공원 (☎ 061-749-4036)

○ 일반현황

- 위 치 : 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200-16(도사동)
- 시설규모 : 6,065㎡(1층) / 1일 수용인원 : 160명
- 체험종류 : 21개 유형(횡단보도, 안전벨트, 전기·가스, 물놀이, 생활안전 등)
- 이용시간 : 연중(10:00~17:00, 매월 첫째주 월요일 휴관)
★ 체험 소요시간 : 약 1시간 20분
- 이용방법 : 인터넷 접수(순천시 홈페이지 종합예약시스템) 또는 직접방문

○ 체험장면



횡단보도



건널목



가상도로



③ 광양 민방위실전훈련센터 (☎ 061-797-2557)

○ 일반현황

- 위 치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15
- 시설규모 : 303㎡(1층) / 1일 수용인원 : 150명
- 체험종류 : 5종(화재진압, 지진, 화생방, 비상탈출, 심폐소생술)
- 이용시간 : 연중(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체험 소요시간 : 약 1시간
- 이용방법 : 사전 전화신청 후 무료 이용

○ 체험장면



화재진압



지진대비



비상탈출

④ 담양 호남안전체험교육장 (☎ 061-383-8294)

○ 일반현황

- 위 치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병목로 219
- 시설규모 : 8,925㎡(2층) / 1일 수용인원 : 40명
- 체험종류 : 26종(경사로·계단, 터널작업, 추락, 밀폐공간, 리프트 등)
- 이용시간 : 연중(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체험 소요시간 : 약 1시간
- 이용방법 : 인터넷 접수(www.kosha.or.kr) 또는 전화신청 후 무료 이용

○ 체험장면



개구부 추락



계단·경사로 안전



리프트 안전

⑤ 여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 061-806-2435)

○ 일반현황

- 위 치 : 전남 여수시 오천동 산122
- 시설규모 : 3개소 / 1일 수용인원 : 80명
- 체험종류 : 15종(선박화재 · 선박침몰 체험, 응급처치, 생존수영, 재난선박 탈출 등)
- 이용시간 : 5월~12월(10:00~18:00)
★ 체험 소요시간 : 약 4시간
- 이용방법 : 한국해양소년단연맹(070-8786-2621) 신청 후 무료 이용

○ 체험장면



선박시뮬레이션



해상구조



응급처치

부록2 유용한 재난안전 사이트

구 분	주 소	구 분	주 소
국민안전처	www.mpss.go.kr	국립재난안전교육원	www.ndmi.go.kr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재난안전원	www.dsti.or.kr
안전신문고	www.safepeople.go.kr	KBS재난포털	d.kbs.co.kr
튼튼안전 대한민국	www.snskorea.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	tv.mpss.go.kr	국가승강기정보센터	www.elevator.go.kr
재난안전교육포털	portal.ndti.go.kr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www.kesafe.or.kr

1920년대 미국 여행 보험회사의 허버트 하인리히는
약 5천 건의 노동 재해를 보다가
그 속에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 하였습니다.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소형사고가 29건 발생하고,
그 소형사고 전에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한
이상 징후들이 300건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1:29:300”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항상 어떤 시그널,
신호가 있다는 것이 이 법칙의 핵심입니다.

청렴에도 이 법칙은 적용될 것입니다.

작은 부조리, 사소한 부패부터 없애 나간다면
청렴은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생활안전 길라잡이

발행일 2016년 6월

발행처 전라남도 사회재난과
(연락처 061-286-3021)

▶ 참 고

-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안전처, 2016.6)
- 「생활안전길라잡이」 (대전광역시, 2015.6)
- 「생활안전길라잡이」 (부산광역시, 2014.11)

